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
 서울특별시		배포일시	2019. 6. 10.(월) / 총 4매(본문 2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광역환승시설과	담 당 자	•과장 강영구, 주무관 양동길 •☎ (044) 201-5130, 5131
	서울특별시 동남권사업과	담 당 자	•과장 김창환, 팀장 이정화 •☎ (02) 2133-8260, 8255
보 도 일 시		2019년 6월 1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10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코엑스-잠실 잇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들어선다

- ◆ 국토부-서울시 맞손, 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-A/C), 도시철도(위례신사), 지하철(2/9호선) 버스·택시 환승 위해 공동 추진
- ◆ 버스환승정류장(52개 노선 운영중), 지상광장, 공공·상업시설도 들어서
- ◆ 평균 환승거리·시간 → 서울역 대비 4배 단축 수준으로 계획
- ◆ 연내 착공, 23년 개통 목표...세계적 대중교통 HUB 및 시민중심 열린 공간 기대

□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최기주)는 코엑스~잠실 운동장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*의 관문역할을 하는 ‘(가칭)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’ 지정을 지난 6.10일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.

* 국제업무, 전시·컨벤션(MICE*), 스포츠, 문화·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서울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핵심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

** MICE : 회의(Meeting), 포상관광(Incentive trip), 컨벤션(Convention), 전시회(Exhibition&Even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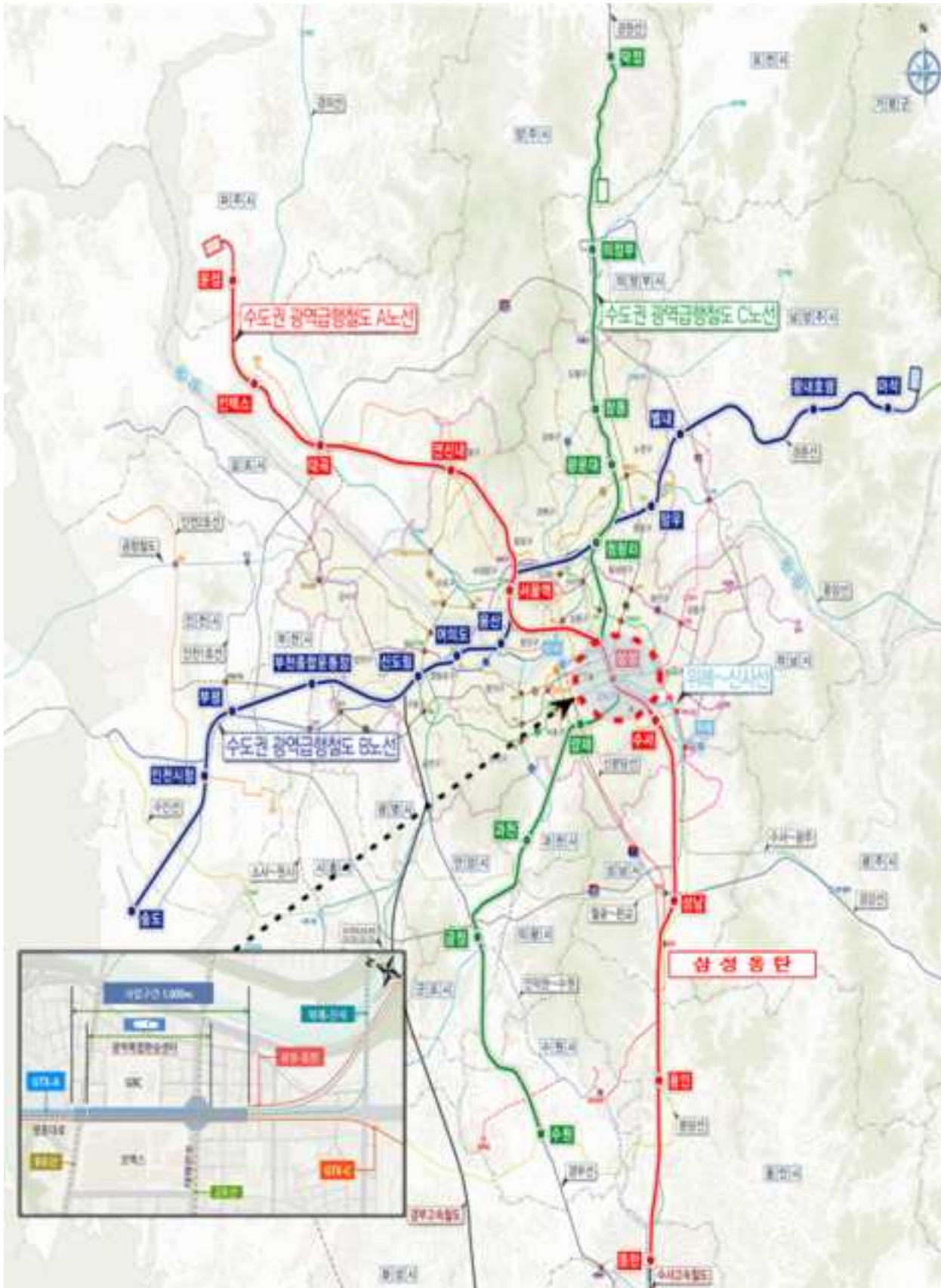
□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영동대로 삼성역~봉은사역 630m 구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-A/C), 도시철도(위례신사), 지하철(2/9호선) 및 버스·택시 등의 환승을 위해 공동 추진 중인 사업이다.

- 광역복합환승센터에는 철도통합역사 외에 버스환승정류장(52개 노선 운영중), 주차장 등 환승시설과 지상광장, 공공·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.
- 지상광장에서 지하4층까지 자연채광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며, 보행동선을 최적화하여 평균 환승거리(107m) 및 시간(1분 51초)을 서울역보다 3.5~4배 정도 단축한 수준으로 계획되었다.
- 그간 대광위는 서울시에서 승인 요청한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교통개선대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토록 하는 절차를 거쳐 동 계획안을 승인하게 되었다.
- 이번에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이 승인됨에 따라 서울시는 연내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고시, 기본설계, 기술제안입찰, 개발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에 착공하고, 2023년까지 복합환승센터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.
- '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' 사업이 완료되면 영동대로·삼성역 일대는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관문이자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환승공간으로서 교통 이용객만 하루 60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대중교통 HUB 및 시민중심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.
-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'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'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조속한 사업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양동길 주무관(☎ 044-201-51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위 치 도



참고2

조감도 및 시설배치계획 (기본계획 기준)

□ 조 감 도



□ 시설배치계획

